

19세기 여성 Sports Wear 변천에 관한 연구

이유경⁺ · 이희현^{*}
국제대학 모델과 교수^{*}
관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hange of Women's Sports Wear in the 19th Century

Yu-Kyung Lee⁺ · Hee-Hyun Lee^{*}
Prof., Dept. of Model, Kookje College⁺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wandong University^{*}
(2006. 12. 26. 접수 ; 2007. 2. 12. 채택)

Abstract

The education chance and job opportunity of women have increased in the 19th century. Also, women tried to get the right and chance equal to men in this period. Therefore, the population of women participating in the sports have increased. And comfortable and practical pantaloons which men have been wearing were suggested to wome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 of women's sports wear relating to social change in the 19th centur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women participated in the sports activities with the opportunity equal to men, and the appropriate women's sports wear was needed.
2. Pantaloons which were suggested as the clothing reform movement became popular with the development of sports wear.
3. Simple, effective, comfortable and easy style sports wear was preferred.
4. Women accepted men's sports wear positively.
5. The women's sports wear varied according to the various kinds of sports.
6. The healthful design was preferred and harmful design was excluded.
7. Underwear was improved functionally and simplified. 8. The main materials were flannel, wool, tweed, homespun and serge, and the mail colors were brown, dark blue, gray and black.

Key Words: Women's sports wear(여성 스포츠 웨어), Costume of the 19th century(19세기 의복),
Change of women's costume(여성복 변화), Social change(사회 변동)

⁺Corresponding author ; Yu-kyung Lee
Tel. 02-6241-6939, Fax. 031-610-8173
E-mail : yukle@hanmail.net

I. 서론

여성복식이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랫동안 서구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 지위 또한 낮았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산업화가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 경제적인 변화, 기술혁신 및 교통의 변화에 따른 사회변화가 이루어졌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권리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또한 도시로 몰려든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이들의 문화적 욕구도 급증하였다.

19세기 중반 여성들에 의한 특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정숙한 가정 내 여성상에서 탈피하고 외부 세상에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고자했으며, 남편의 지위상징 또는 trophy wife라는 역할에 대해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다양한 사회적 특권을 접하게 되었으며 때로는 그들의 권리를 찾기도 했다. 1852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 여성 권리를 위한 집회는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으로부터 점차 독립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864년 미국 여성은 Washington의 정부기관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공장, 비서직 등으로도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19세기는 여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공립(public)대학에서 그동안 금지해왔던 여학생 입학이 허용했으며 1870년대 Smith대학이나 Wellesley대학과 같은 여자대학이 차례로 설립됨에 따라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던 것이다. 간호사 Nightingale이나 작가 Sand와 같이 획기적 사회 활동을 한 여성 leader도 등장했다¹⁾. 이 시기 여성들이 결혼보다 career를 선호하는 경향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가속화시켜 가정생활 외에 직업을 갖는 직업여성의 수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Crinolin 및 bustle 스타일의 유행 시기를 거치며 여성스럽고 정숙한 모습을 위해 corset, 스킷트 버팀대 등으로 신체를 구속하게 되었고 이는 활동의 자유를 제한시켜 불편을 초래했으며 건

강에도 매우 유해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여성의복을 개혁하고자하는 의견과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850년대 초 Bloomer에 의해 바지착용이 제기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심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뿐 실제로 착용되지는 못하였다. 이미 그 이전에도 여성들은 남성들의 전유물인 waistcoat를 차용하였으나 외적으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품목이었으므로 바지만큼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점차 사회주의와 남녀평등사상의 영향으로 여성복에도 jacket, shirt-waist, cravat 등의 tailored suit가 착용되었는데 이러한 남성복 착용에 대해 Cunnington은 앞으로 있을 여성의 진보를 상징한다고 주장한다²⁾. 19세기 이후 많은 부분에서 남성들을 뒤따라했던 여성들은 의복에서도 남성들은 모방했던 것이다.

스포츠는 유럽 및 미국 등 서구사회의 생활에서 점차 그 중요도를 더해갔다. 테니스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였고, 이 시기 중산층에 의해 더욱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남녀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이기도 했다. 크로켓과 양궁도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여가활동이었고 산악등반, 승마, 빙상 등도 유행하였다. 한편, 자전거타기, 수영, 양궁, 펜싱도 여성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의 수도 더욱 증가하였다.

스포츠 활동이 눈에 띄게 발달함에 따라 스포츠 활동 시 신체 동작 및 자유를 허용하는 편안한 의복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일부 여성들은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 breeches를 입기도 했다³⁾. 1860년대 경이로울 만큼 급격히 변화하는 여성 해방 fashion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 규범 및 기준은 처음으로 혼란기를 겪게 되었다. 실제로 기존 fashion에 대한 불만은 항상 사회적 여건에 대한 불만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⁴⁾. 따라서 사회 규범 및 가치관에 대한 여성들의 변화는 여성 의복 변화를 수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교육과 스포츠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가 크게 신장됨에 따라 19세기 말 신여성(new



<그림1> Cunnington(1960). A Picture History of English Costume. p.98. 도265.



<그림2> Cunnington(1990). English Women's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p.133.



<그림3> Laver(1988). Costume & Fashion. p.182. 도199.

woman)이 등장하게 되었다. 남성의 패션은 점차 수수해지는 반면 여성복은 더욱 화려해지는 시점에서 신여성은 기존 여성들이 추구하던 거추장스러운 dress 대신 tailored suits를 선호하였다. 신여성의 외적 상징은 tailor-made 의복이었던 것이다⁵⁾. 그들은 여성권리, 교육, 사회적 자유, 신체적 활동을 중시했고 그것은 여성 의복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활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19세기 중·후반을 중심으로 여성 sports wear의 등장 및 변화 그리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하며, 이를 그 시대 사회적 변화와 관련지어 고찰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시기는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여성 의복 개혁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며 최초로 여성의 대학입학이 허용되어 교육기회 및 사회 참여가 확대되었던 시기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가는 시기로 본격적인 여성 sports wear의 태동기로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오늘날 중요도를 더해가는 sport casual의 근원을 살펴보고 그 디자인 개발 및 나아갈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II. 19세기 여성 Sports Wear의 변천

1. 1850년 이전

승마는 상류계급 여성들이 가장 일찍이 즐겼

던 여가활동 가운데 하나였다. 17세기 중반 교외에서 승마, 산책, 여행을 위해 여성들이 착용했던 승마복은 남성용 코트를 모방한 코트와 cravat, 가발, 삼각모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부풀린 스커트 및 페티코트와 함께 착용되었다. 18세기 여성 승마복도 남성복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딱딱하게 tailored된 riding coat를 빠니에 스커트 위에 착용했다. 따라서 여성 sports wear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것은 승마복으로서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도 남성복에서 유래된 승마복을 착용하였다.

<그림1>은 1812년 제작된 녹색의 승마복으로 녹색의 타조 깃털이 장식된 작은 검정색 승마용 beaver hat과 녹색의 술 장식이 있고 끈으로 묶어 올린 검정색 반부츠, 무두질한 장갑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2>는 1840년의 갈색 승마복으로 흰색 petticoat 위에 착용하였으며 검정 실크 cravat와 검정 beaver hat, 흰색의 베일과 함께 착용되었다.

2. 1851년-1870년

이 시기는 화려한 crinolin 스타일이 유행하는 한편 바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Saint Simon의 사상을 이어받은 썽시몽주의자들은 1848년 2월 혁명 이후 남녀평등 사상을 여성의 복식개혁으로부터 실현하기위해 여성의 바지착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으나 스포츠에 대



<그림4> Fische(2001). *Pantaloon and Power*. p.80.



<그림5> Payne(1983). *History of Costume*. p518. 도548.



<그림6> Cunnington(1960). *A Picture History of English Costume*. p.115. 도316.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바지착용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1851년 미국의 여성 잡지 ‘Lily’의 발행인이며 저널리스트인 Amelia J. Bloomer는 부드러운 jacket, 무릎길이의 넓은 스커트, 발목까지 오는 넉넉한 baggy style의 harem pants로 구성된 bloomer 의상을 발표했다<그림3>. 터키풍의 헐렁하고 풍성한 긴바지를 활동하기 편하게 끝을 오므려 lace frill을 달고 그 위에 짧은 스커트나 tunic dress을 착용하기도 하는데 Bloomer는 여권 존중의 입장에서 이 바지를 디자인했다. <그림4>는 1851년 10월 발행된 *Water-Cure Journal*에 실린 Bloomer 모습이다. 여성운동가였던 블루머와 그녀의 동료 운동가들은 이 복장이 편안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안전하고 단정하다는 이유로 즐겨 착용했다. 이는 신체를 제한하는 corset 대신 편안한 pantaloons 착용을 제안한 것으로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이며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었다⁶⁾.

최초로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Bloomer에 의한 복장개혁안은 또한 가장 악명 높았다. 그 당시 bloomer style 의상은 feminism에 대한 증오의 상징이었고 적개심과 조롱을 받았다. 이는 그 의복이 성별의 차이를 파괴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블루머파와 반블루머파의 집회가 열리는 등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오래지않아 여성 수영복으로 재등장하였고 그 후 자전거복과 스포츠 패션으로도 부활하였다⁷⁾. 또한 스커트 밑에 drawers를 속옷처럼 입는 것이 널리 보급되었고 점차 승마와 그 외의 스

포츠가 성행함에 따라 drawers나 pantaloons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착용이 보편화되었다.

1850년대 이후 Dr. Dio Lewis 등을 중심으로 여성 건강, 교육, 운동(exercise)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운동을 위한 의복개혁이 허용되었다. 여성 대학에서 1860년대 체육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Lewis는 1861년 체육교육을 위해 ‘Normal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Lewis는 여성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의복 개발을 강조하였다. Vassar 대학에서는 1886년 회색 프란넬, 높이 올라오는 칼라, 긴 소매, 발목 길이 스커트와 bloomer를 유니폼으로 착용했다. 이 운동복은 승마, 테니스, 크로켓 등을 위한 sports wear와는 구별되어 발달되었으나⁸⁾ 기존의 의복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과 활동 자유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19세기 중반까지 수영은 남성에게만 허용되었던 활동이었다. 그 후 여성들도 수영을 즐기게 됨에 따라 여성 수영복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적합한 의복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 시기에 먼 스커트, 블라우스, cap으로 구성된 평상복차림으로 수영을 하던 여성들에게 특별한 수영복이 소개되었는데, 1850년대 후반과 1860년대 초반 등장한 bloomer, 무릎길이의 dress, dust cap, clock, 대비되는 색으로 뚜렷하게 의복 가장 자리를 장식한 band로 구성된 수영복이었다. 이는 앞으로 등장할 특수복의 시작에 불과했다. 수영복은 다른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의복이 허용되는 또 다른 의복영역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 여름휴양지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



<그림7>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382. 도1009.



<그림8> Gernsheim(1981). Victorian and Edwardian Fashion. 도78.



<그림9>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385. 도1018.

들이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을 시험하려고오는 ‘패션실험실’과도 같았다9).

짧은 반바지나 bloomer가 이미 1860년대 여성용 수영복으로 받아들여져 벨트를 단 재킷과 함께 착용되었다. 미국에서는 무릎길이나 발목길이의 스커트를 바지위에 입었다. 수영복 착용시 코르셋은 일상복보다는 드물게 착용되었지만 권장되었다10). 1860년대 초 여성들에게 운동으로 수영을 하도록 권장되었고 1870년경에는 더 많은 여성이 실제로 수영을 배우게 되었다. <그림5>은 1860년대 수영복이다. 빨강 프란넬과 검정 braid로 가장자리가 장식된 검정 울 포플린으로 만들어졌으며 Amelia Bloomer의 유산인 bloomer 위에는 벨트가 있는 dress를 입고 검정과 빨강 plaid 문양 홈스핀으로 만들어진 cape도 함께 착용되었다.

1850년 이후 여성복에 편안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의복이 소개되었다. <그림6>는 1853년 승마복으로 스커트를 묶어 올려 활동하기 편하

게 하였고 흰색의 petticoat 위에 착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7>은 1860년도 푸른색 승마복으로 타이트하고 짧은 jacket과 cravat 및 beaver hat을 착용하고 옆 안장으로 말을 타고 있다. 영국에서 여성복이 단순화되고 실용적이 되어감을 알 수 있다. <그림8>은 1860년대 중반 승마복으로 크리놀린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거의 유일하게 crinolin을 착용하지않은 종류의 의복인 승마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9>는 줄무늬 페티코트 위로 overskirt를 걸어 올려 착용한 체크 문양 타프타 가운데로 특별히 croquet 등 정원용 게임을 위해 디자인되었는데, 몇 년 후에는 일상복으로 확대되었다11). <그림10>는 1858년 양궁복을 착용한 집단의 모습이다. 남성들은 다양한 스포츠웨어를 착용하고 있으며 가운데 소녀는 짧은 스커트와 crinolin을 착용하고 pork-pie hat을 쓰고 있다. 역시 짧은 크리놀린 스커트를 입은 우측 여성은 이 시기 유행의 첨단인 round hat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10> Cunnington(1960). A Picture History of English Costume. p.116. 도318.



<그림11> Gernsheim(1981). Victorian and Edwardian Fashion. 도86.



<그림12> Gernsheim(1981). Victorian and Edwardian Fashion, 도80.



<그림13> Fische(2001). Pantaloons and Power. p.150.



<그림14> Gernsheim(1981). Victorian and Edwardian Fashion. 도108.

1860년대 여성들은 도시가 아닌 교외나 바닷가에서 일시적으로 페티코트가 보이도록 스커트를 걷어올렸다. 영국에서는 특히 양궁<그림11> 및 croquet<그림12> 또는 이와 유사한 스포츠 활동 시 스커트를 걷어 올린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그림11>에서는 panier의 크기가 약간 축소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1850년대 Amelia Bloomer에 이어 1860년대 또 다른 의복개혁가 한 사람이 등장했다. 미국인인 Dr. Mary E. Walker는 신체의 자유 및 해방을 위한 합리적 의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녀는 본인의 결혼식 의상으로도 짧은 dress와 pantaloons를 착용할 정도였다. <그림13>은 Walker의 1860년대 중반 군복무중인 모습으로 역시 바지 차림이다¹²⁾. 진보의 속도는 완만했지만 여성의 자유 추구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남성복과 함께 남성용 모자도 여성 sports wear에 포함되었는데 beaver hat은 1830년대에 승마복과 함께 착용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여성들이 다른 종류의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남성의 모자를 활용한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였다. 밀짚 sailor hat은 1860년대에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3. 1871년-1880년

1870년 이후 사냥, 승마, 수영, 요트 등의 스포츠 활동에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 sports wear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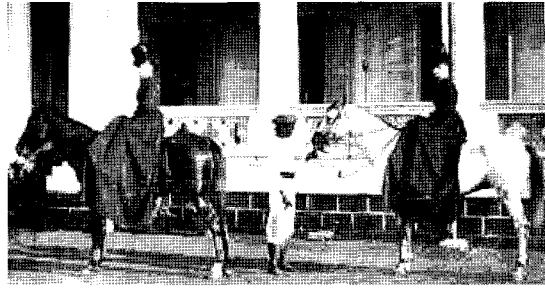
sports wear는 스포츠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달라졌다. 즉, 집 근처나 사교클럽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여성복 표준에 따랐다. 테니스, 크로켓, 아이스 스케이팅, 골프 등은 스포츠라기보다는 사교활동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사교계 여성복장 즉, 긴 스커트, 꼭 죄는 코르셋, 커다란 모자 등이 요구되었다. 반면, 공공시설이나 교외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남성복 형태의 sports wear가 착용되었다. 여자 대학은 여성들이 남의 눈에 띄지않고 야구 등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¹³⁾.

1870년 Mrs. Oliphant는 보트 타기나 테니스를 위한 특별한 의상을 제안했다. 이 시기 남성들은 편안한 프란넬을 착용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그 수도 드물었지만 활동 및 용도에 따라 의상을 변경하기보다는 약간 짧고 간단한 tennis apron을 형식적으로 스커트 위에 걸쳤을 뿐이었다. 그 당시 여성의 의상인 bustle은 스포츠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였으므로, Mrs. Oliphant는 피로를 최소화하는 편안한 의상 제안에 초점을 두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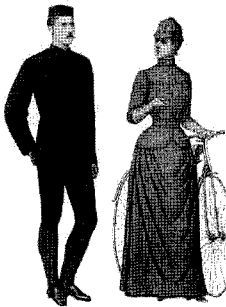
<그림14>는 세일러복 형태의 1870년 요트복과 모자('boater')이다. 1872년 스케이팅복인 <그림15>에서는 방수 트위드로 된 polonaise skirt와 군복 스타일의 선장식을 볼 수 있는데 스커트 길이가 짧아져 활동하기 편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6>은 1877년 승마복으로 넓은 스커트와 남성용 beaver hat을 착용하고 옆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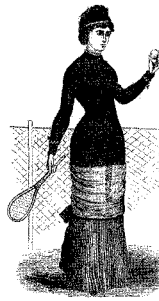
<그림15> Cunnington(1990). English Women's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p.266.



<그림16> Gernsheim(1981). Victorian and Edwardian Fashion. 도119.



<그림17> Laver(1988). Costume & Fashion. p.204. 도222.



<그림18> Cunnington(1990). English Women's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p.293.



<그림19> Rothstein(1984). Four Hundred Years of Fashion. p139. 도63.

앞아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17>는 1870년대 후반 자전거복으로 남성은 꼭 끼는 knee-breeches와 군복 스타일의 jacket, 작은 모자 ('pill-box')를 착용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standing collar가 달리고 요크와 벨트가 있는 꼭맞는 재킷과 함께 자연스럽게 drape되는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다. 가슴부분의 개더는 활동의 자유 및 편리성을 제공한다. <그림18>은 1879년 jersey tennis costume이다. 신축성이 커 활동하기 편한 jersey는 뒷면을 접착하여(boned) 테니스복으로 종종 활용되었다. 1870년대는 bustle이 유행하던 시기였으나 bustle 스커트 버팀대를 착용하지 않아 편안함을 강조했다.

1870년대 즈음 신체적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knicker-bockers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1874년에는 chemise와 drawers가 복합된 새로운 내의 스타일이 등장했다. 앞이나 뒤에 트임이 있고 high neck나 긴소매인 것도 있었다. 소재는 linen, merino, nainsook¹⁵⁾, calico,

cambric, silk 등이었다. 1978년에는 대부분 두 가지 품목이 합쳐진combination을 입었는데 이는 신체의 보온성을 높여주고 스포츠 활동을 편리하게 해주었다¹⁶⁾.

4. 1881년-1890년

1883년 런던에서 합리적 의복 협회(Rational Dress Society) 대회가 열렸는데 유일한 남성 참석자인 Oscar Wilde에 의해서 집회가 선도되었다. 여기에서 합리적 의복으로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복 스케치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등작으로 삼륜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성을 그린 작품이 선정되었다. 일자로 흘러내린 스커트는 장만지 중간쯤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그 밑으로 발목 길이의 바지가 드러나 보이는 형태였다¹⁷⁾. 1880년대는 최초로 여성용 바지가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냈던 시기로 pantaloons, bloomer, trouser-skirt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는 여성을



<그림20>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387. 도1022.



<그림21>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387. 도1023.



<그림22>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387. 도1026.

유럽 및 미국에서 볼 수 있었다.

Tailored suits는 1880년대 영국의 Redfern에 의해 고안되어 전유럽에 유행하게 된 것으로 남성복 일습인 coat, waistcoat, cravat, tie를 모방하여 여성복으로 차용한 스타일이다. Tailored suits는 착용자가 독립적인 여성임을 상징하고 특히 박애주의적 사회사업에 관여하는 여성임을 드러내며 등장한 일종의 유니폼과도 같았다¹⁸⁾. 한편 사회참여 외에도 스포츠 웨어로의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자유로운 젊은 여성은 테니스를 치거나 자전거를 탈 때 트위드로 제작한 tailor-made를 많이 입었다. 얇고 신축성이 있어서 착용자의 인체선이 드러나는 소재인 jersey가 tailor-made costume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주로 살색, 하늘색 또는 크림색을 선호했다¹⁹⁾. 여성들은 더욱더 합리적 의복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것처럼 합리적(rational)이면서 매력적인(charming)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해결할 문제로 남았다²⁰⁾.

1880년대 여성해방에 대한 trend의 한 측면인 active sports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Sports costume은 tailor-made와 함께 영국식의 새로운 제안이었다. 여성복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은 남성과 동등하다는 사실의 인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여성들은 더 이상 매력적 측면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회적 중요한 일을 가진 여성들은 의복의 단순성을 추구하였다.

<그림19>는 1885년 tennis복으로 허리 부분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짧은 bodice, 어깨부분

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소매를 높이 단(higher-set) 의상이다. 흰색 면으로 된 이 dress는 square neckline과 hip 길이 bodice이며, 레이스로 선 장식된 tiered, pointed, pleated flounce가 달려있다. 단순하고 효율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²¹⁾.

스포츠도 하나의 관습으로 받아들여져서 수영복은 실제 용도보다 우아하게 디자인되는 특성이 있었다. <그림20> <그림21> <그림22>은 1880년대 수영복 광고이다. 여성들은 반소매의 상의에 종아리 길이의 drawers를 착용하고 머리에는 cap을 썼다. Collar가 달리거나 braid 선장식이 있는 것도 있었고 cape를 착용하기도 했다.

1880년 수영복의 한 예로는 serge로 된 넉넉한 블라우스에 팔꿈치 길이 소매와 칼라가 있는 것이 있다. 하의는 발목보다 몇 인치 올라간 drawers로 넓은 braid 선장식이 있으며 빨간 울 소재 sash와 거친 밀짚모자로 구성된 것이다. 1881년 수영복으로는 소매가 없는 tunic과 발목까지 오는 trouser로 구성된 것이 있으며, 1883년형 수영복은 소매는 없으나 어깨장식(epaulette)이 있고 벨트가 달린 tunic과 무릎아래 길이의 넉넉한 drawers로 구성되었다²²⁾.

이 시기는 파리의 영향으로 의상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림23>는 1887년 bustle style의 자전거복으로 tailor-made jacket과 pleats skirt, 남성용 tie와 straw hat을 볼 수 있다. <그림24>는 1887년 여성 테니스복으로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허리 아래에 개더를 잡아 간편해진 스타일이다. <그림25> 역시 1887



<그림23> Gernsheim(1981).
Victorian and Edwardian Fashion. 도142.



<그림24> Gernsheim(1981).
Victorian and Edwardian Fashion. 도141.



<그림25> Cunnington(1990).
English Women's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p.340.



<그림26> Wilcox(1958). The
Mode in Costume. p.317.



<그림27> Wilcox(1958). The
Mode in Costume. p.317.



<그림28> Cunnington(1981).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24. 도94.

년 bustle style의 테니스복이고, <그림26>과 <그림27>은 1880년대 요트복과 사냥복이다. 요트복은 흰색 프란넬의 'Princess Polonaise'와 흰색 홈스펀 pleats skirt, 흰색 줄무늬 jersey jacket과 흰색 모자 및 신발로 구성되어있다. 사냥복은 체크문양 천에 collar, cuffs, 주머니 부분이 velvet으로 되어있고 가죽 waistcoat와 각반을 볼 수 있다²³⁾. 1882년 사냥복으로 체크문양 홈스펀으로 된 norfolk jacket과 무릎길이 box-pleated skirt, knicker-bockers와 대넒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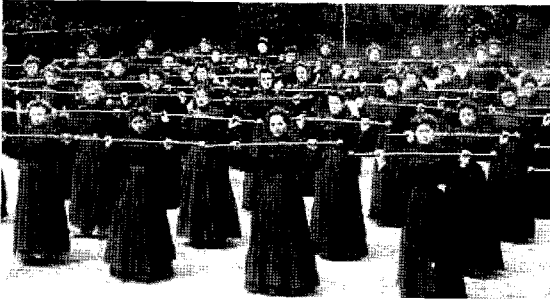
1890년경 런던에서 새로 선보인 승마복은 반바지 위에 발목까지 오는 프록코트로 구성되었다. 이 복장은 물의를 일으켰는데 승마시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면으로 앉아 말은 타는 것은 1차 세계대전 후까지도 적절하지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²⁵⁾.

내의로는 새로운 스포츠활동을 위한 것과 전통적 의복을 위한 두 가지 종류가 유지되었다.

야외 스포츠 활동은 내의의 부피를 감소시켰고 combination은 일부 petticoat의 편리한 대안으로 사용되었다²⁶⁾. <그림28>은 Dr. Jaeger가 디자인한 1885년 여성용 combination으로 위생적이고 기능적이다.

남성 정체성의 강력한 상징인 모자 중 승마용 보울러 모자와 남성용 펠트 중절모가 19세기말에 여성 sports wear에 나타났다. 남성용과 유사한 높은 silk hat, 밀짚모자, 사냥모자, 챙이 달린 요트모자는 이 기간에 여성이 스포츠를 즐길 때 착용되었다²⁷⁾.

19세기 중·후반에는 미국의 대학들이 여성의 입학에 허용할 무렵 대중건강과 체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때 채택된 체조복 중 하나는 이 검은 면 스타킹과 함께 착용되었던 무릎길이의 divided skirt였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가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파리의 한 백화점 카탈로그는 펜싱이나 체조를 위해 소녀들이 입는 무릎길이의



<그림29> Crane, 서미석역(2000).
패션의 문화와 사회사. p.196. 도32.



<그림30> Cunnington(1960). A Picture History of
English Costume. p.133. 도371.

바지를 광고하는 한편, 19세기 말 파리의 교사 양성학교에서는 여성들이 체육시간에 발목을 덮는 길고 폭이 넓은 검은색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그림29>28). 급격한 변화를 수용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의복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1891년-1900년

1890년대는 가치관의 변화가 큰 시기였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스포츠웨어의 사치함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자전거, 골프, 테니스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에 대한 여성들의 새로운 열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편안하며 착용이 쉬운 의복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짧아진 skirt, 편안한 jacket이나 shirtwaist로 구성된 tailored suit가 유행하였을 뿐 아니라 남성용 모자와 남성용 뺏뺏한 흰 칼라를 착용했다. 또한 걷기, 승마, 사냥을 위해 견고한 신발을 신었다29).

여성들은 스포츠와 레저를 위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1890년대에도 남성복을 채택했다. 신여성(new women)의 의복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져서 jacket, shirtwaist, 편한 skirt 등을 착용했고 자전거 등의 활동에는 divided skirt를 착용하기도 했다. <그림30>은 1890년 tailor-made jacket, waistcoat, 폭이 좁아진 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다. 신사를 상징하는 collar가 달린 shirt-

blouse와 타이틀 매고 작은 모자를 착용하여 남성복 일습의 형태를 취했다. 1890년대 Viscountess Harburton은 여성 sports wear를 남성복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National Dress Society를 설립했고 모든 스포츠에 적용시켰다. 1890년대 후반에는 divided skirt가 대안의복으로서 jacket과 함께 착용되었다.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shirtwaist의 인기를 상승시켰다. Suits와 함께 착용하는 tailored shirtwaist는 standing이나 turned-down 형태의 뺏뺏하게 풀 먹인 칼라와 cuffs가 있는 남성적인 것이다. 초기 셔츠는 단순한 스타일로 앞은 넉넉하고 뒤에는 요크가 있으며 셔츠소매가 달렸다. 스커트와 셔츠는 각기 다른 소재로 만들어졌고 bow tie를 매기도 했다. 짧아진 스커트와 함께 shirtwaist는 waist suit를 구성하였으며 이 시기 가장 편안하고 매력적인 fashion이었다.

또한 tailored suit는 중요한 business wear였고 기능적이고 실용적이며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의복을 원하는 트렌드와도 일치했다. 1890년대 유럽의 여성 sports wear 규범은 남성 sports wear를 어느 정도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변형하여 채택하는 것이었다. 미국 여성은 규범보다 약간 짧고 바지 위에 입는 tailored suit를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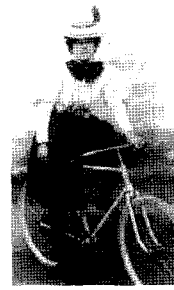
1890년대는 요트, 테니스, 자전거, 골프, 수영 등 인기 있는 스포츠에 적합한 의복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했고 특정용도에 따른 의복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Sports wear는 영국스타일을 기본으로 하여 실용적인 의복으로 전개되었다.



<그림31> Cunnington(1990). English Women's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p.388.



<그림32> Gernsheim(1981). Victorian and Edwardian Fashion. 도170.



<그림33> Crane. 서미석역 (2000). 패션의 문화와 사회사. p.199. 도34.

골프복은 두꺼운 트위드 소재, 투박한 coat, 커다란 cap이 특징인 country clothing과 유사했다. 1897년에는 'Ladies' Hockey Match'와 'Ladies Golf Union'이 창설되었다³⁰⁾. 당대의 멋쟁이 여성들은 골프복으로 shirtwaist, 스커트와 함께 golf cape나 norfolk jacket을 입고 경기에 임했다.

1893년 Redfern은 골프복으로 요크와 belt가 있는 norfolk jacket, 손목밴드가 있는 넉넉한 소매, 발목 길이의 스커트, tam-o'shanter³¹⁾를 제안했다³²⁾. <그림31>는 가슴 부분에 X자형 끈이 있는 1894년 골프 cape로 plaid 문양의 천으로 안감을 냈다. 양옆에 3개씩의 단추가 있는 트위드 소재의 스커트와 앞자락이 잘려나가고 진홍색 실크로 안을 댄 민소매 coat로 구성된 1894년형 골프복과 바닥에서 6인치 올라온 검정 서지 스커트, 검정 knicker-bockers, 각반, 비숍소매 블라우스로 구성된 1895년형 골프복도 기록되어 있다³³⁾. 또한 스커트에 갈색 앵클부츠, tam-o'shanter나 homburg hat, 트위드 mantle을 입기도

했다³⁴⁾.

1890년대 자전거타기가 매우 보편화되면서 어떤 형태든 바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892년 여성의 바지착용을 법으로 금했으나 자전거 타는 경우만 예외로 하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bloomer 위에 스커트를 입거나 divided skirt를 입었다. 따라서 divided skirt나 풍성한 bloomer, knicker-bockers, 짧아진 스커트를 착용하고 상의로는 shirtwaist, norfolk jacket과 같은 편안한 jacket 차림이 주를 이룬다. 그 외에 긴 울 스타킹과 끈으로 묶어올리는(laced) 신발, sailor hat, 가벼운 straw hat, 남성 straw boater를 모방한 모자, bow tie, tight belt 등 합리적인 복식을 입기 시작했다. 자전거는 여성 sports wear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꾸어놓은 여성해방의 상징물 중 하나가 되었다³⁵⁾.

<그림32>는 1893년형 상의를 길게 한 two-piece 형식의 자전거 의상으로 당시 유행하던 gigot 소매를 볼 수 있고 boater style의 챙이 넓은 straw



<그림34> Cunnington(1960). A Picture History of English Costume. p.138. 도385.



<그림35> Black. 윤길순역(2005). 세계패션사. p.386.



<그림36> Cunnington(1990). English Women's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p.350.



<그림37> Gernsheim(1981). Victorian and Edwardian Fashion. 도175.



<그림38> Laver(1988). Costume & Fashion. p.209. 도228.



<그림39> Payne(1983). History of Costume. p.533. 도563.



<그림40> Wilcox(1958). The Mode in Costume. p.327.

hat을 썼다. 풍성하고 무릎 아래에서 band로 gather를 잡은 knicker-bockers, 긴 각반, 허리에 벨트가 있는 norfolk jacket, shirt와 tie로 이루어진 1894년 자전거복도 기록되어 있다. 1895년 자전거복으로는 divided skirt, 새틴 breeches, 짧은 coat, waistcoat으로 구성된 것이 있다. Skirt는 2야드 내지 2.5야드 폭으로 양옆에 단추가 있고 자전거를 탈 때에는 왼쪽을 잡지 않아 편리성을 부여하였다³⁶⁾. 1895년 여성들은 bloomer 위로 스커트를 입거나 divided skirt를 착용하였다. <그림33>에서는 무릎길이 divided skirt, straw hat, 유행에 맞게 넓은 gigot 소매가 달린 블라우스를 볼 수 있다. <>는 1895년 new women의 자전거복으로 knicker-bockers와 coat를 착용한 반면, 1895년 배터시공원의 두 소녀는 아직도 깃털장식 모자에 gigot 소매가 달린 상의와 스커트를 입고 있다<그림35>. <그림36>는 1896년 자전거 의상이며 <그림37>는 1897년 무릎길이의 짧은 bloomer 자전거복으로 젊은 여성들의 자유로

움에 대한 요구를 촉진시켰다. Payne은 파리 여성은 자전거복으로 과감히 jacket과 bloomer를 채택한 반면 영국여성은 무릎길이 flared skirt 형태를 착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³⁷⁾.

넥타이는 1890년대 대중화되었던 여성 자전거복의 일부로 많이 착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독립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Ginsburg는 넥타이는 1890년대의 ‘페미니스트 제복’의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성의 평등을 요구하는 단호한 주장이자 남성 특권에 대한 공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³⁸⁾.

승마복의 변화가 가장 적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여성들은 남성복 형태의 의상을 승마복으로 채택해왔다. <그림38>는 1894년 승마복으로 single 또는 double 여밈이 함께 유행했다. 스커트 밑에 착용되었던 white petticoat는 바지로 대체되었으며 도시에서는 top hat이 일반적으로 착용되었고 jockey cap은 때때로 country에서 착용되었다. 긴 승마용 스커트는 잠차 짧



<그림41> Wilcox(1958). The Mode in Costume. p.327.



<그림42> Gernsheim(1981). Victorian and Edwardian Fashion. 도191.



<그림43> Bouche(1987). 20000 Years of Fashion. p.387. 도1025.



<그림44> Mulvey(2000). Decades of Beauty. p.24.



<그림45>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387. 도1024.

아졌고 그 밑으로 남성적인 영국식 가죽 부츠를 착용했다.

테니스복으로는 serge 스커트에 셔츠 블라우스, sailor hat을 착용했다. <그림39>는 sailor collar blouse와 간편한 skirt로 구성된 1895년 테니스복이다. <그림40>는 1895년 gigot 소매의 줄무늬 테니스복으로 빨강색 tam-o'shanter, 흰색 oxford화, 검정 스타킹을 착용했다. 세일러 칼라가 달린 1895년 흰색 린넨 요트복<그림41>은 흰 칼라가 달린 흰색 점문양 navy shirtwaist, 줄무늬 cravat, 흰색 cap과 흰색 oxford화로 구성되어있다. <그림42>은 1900년 하키복으로 leg-of-mutton 소매의 shirt-b blouse에 부드러운 스커트를 입고 목에는 cravat을 맨 모습이다. 각각의 스포츠 종류에 따라 차별화되어가는 여성 sports wear를 볼 수 있다.

1890년대 최초로 여성운전자가 생겨났고 그들을 위한 의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온과 안락함을 위한 특수한 coat를 착용하고 blanket을 사용하기도했으며 도로의 먼지로부터 얼굴 및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베일로 둘러 고정한 커다란 모자를 썼다. 또한 goggle을 착용했는데 이는 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³⁹⁾. <그림43>는 20세기 초 여성 운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이전의 1900년 자동차 운전복이다.

수영이 점차 유행되면서 수영복은 더욱 과감해졌다. 하의로는 trouser나 bloomer, knickerbockers를 착용하였고, 상의로는 팔꿈치 길이의 leg-of-mutton 소매나 짧은 소매가 달린 단순한

무릎길이 fitted bodice 원피스를 착용하였다. 자수 장식의 가운데나 끈으로 묶어 올린 ghillie 또는 canvas천으로 만든 운두가 낮은 신발이 착용되었고 머리에는 mob cap이나 knotted handkerchief를 착용했다. Corset이나 스타킹도 착용되었는데 스타킹은 주로 검정색이었다. 소재는 차가운 바다로부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serge, 모, 알파카 또는 프란셀이 많이 사용되었다. 색상은 dark blue나 black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림44>과 같이 대개 white braid로 선 장식을 했다. <그림45>는 1895년 수영복으로 민소매에 짧은 상의를 착용하여 이전보다 노출이 많아진 형태이다.

1890년대 combination은 주로 울로 만들어졌고 길거나 짧은 소매가 달렸다. 더욱 fashionable한 형태는 silk, nainsook, surah⁴⁰⁾ 등으로 만들어졌고 가장자리 레이스로 장식했으며 리본으로 목 부분을 묶었다⁴¹⁾.

Sports wear와 함께 머리에는 작은 felt fedora, 천으로 된 tam-o'shanter 또는 sailor hat을 많이 착용했다. 여성 sports wear 소재로는 주로 홈스펀, 트위드, 양면 옥스퍼드지 등 거칠고 투박한 남성용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색상은 dark blue, brown, gray와 plaid 등의 어둡고 수수한 색이었다.

III. 논의 및 결과

지금까지 19세기 중·후반기를 중심으로 여

성 *sports wear*의 등장 및 발달과정을 사회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대 여성 *sports wear* 변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고찰할 수 있었다.

1850년대 초 의복개혁운동의 일환으로 *Bloomer* 여사가 스커트 아래 바지착용을 가시화함으로써 여성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의 바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당시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수용되지 못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자전거복 및 수영복으로 재등장하였고 스포츠 활동 시 스커트 속에 입는 내의로의 중요한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Knicker-bockers, bloomer, breeches, drawers, divided skirt, pantaloons* 등의 명칭으로 다양한 형태의 바지가 착용되었다. 이처럼 기능적인 바지가 *sports wear*로 각광 받았으며 바지의 대중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여성 *sports wear*의 등장이 사회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19세기 여성복이 *romantic style, crinolin style, bustle style*을 거치면서 *corset*과 스커트 버팀대, 여러 겹의 *petticoat* 등으로 여성 건강을 해치는데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다양한 교육 특히 대학 교육 기회와 체육수업 기회의 증가, 사회 진출 및 자심감 고취 등에 따라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장하는 여성 가치관의 변화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실용적이고 실질적 측면에서의 바지의 필요성 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바지에 대한 선호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승마를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스포츠에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19세기 후반기에는 테니스, 자전거, 요트, 골프, 크로켓, 하키, 양궁, 사냥, 스케이트, 수영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의복 대신 활동 및 동작을 방해하지 않는 의복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단순하고 효율적(*simple & effective*)인 의복과 편안하고 활동하기 쉬운 (*comfortable & easy*) 의복이 여성 스포츠 웨어로 각광받게 되었다. 때로는 길고 휘감기는 스커트를 묶어 올려 길이를 짧게하고 여유분을 고정시킨다거나 스커트 폭은 적당히

좁게 재단하는 방법 등이 활용되었다. 1895년경에는 바닥에서 6인치 올라온 골프복 스커트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당시에 필수적인 스커트 버팀대 크리놀린을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활동성을 보장하고 실용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는 남성과는 다르게 그동안 별다른 *sports wear* 없이 불편한 일상복을 착용하고 스포츠에 임하던 여성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동작을 가능하게 하고 어느 정도 적극적인 태도로 경기에 임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성복 형태의 *sports wear*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남성복 일습인 *tailored suit*는 *coat, waistcoat, shirt-waist*를 비롯하여 바지, *tie*, 모자와 함께 착용된다. 남성복을 차용한 여성 *sports wear*인 경우 남성 바지 대신 실용적인 스커트를 착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new women*으로 인해 *tailored suit*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교육, 사회 참여 등에 있어서 기존 여성들과 다른 가치를 지녔던 *new women*들은 남성복을 착용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기존 남성 *sports wear*로 주로 착용되었던 *norfolk jacket*도 여성 *sports wear*로 많이 착용되었다. 여성 *sports wear*가 남성복 형태를 차용한 것은 남성들만의 특권이었던 실용적이고 단순하며 인체를 왜곡하지 않는 형태의 의복 착용을 통해 남성들이 누렸던 편리함과 활동성을 공유하고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식적이고 화려한 스타일 대신 간편하고 실용적인 의복으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20세기 접어들면서 직선적이고 인체선을 왜곡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여성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890년대에는 *sports wear*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용도 및 활동 특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이 개발된 것이다. 자전거복은 다른 스포츠보다 앞서 바지를 채택함으로써 여성의복 변화를 가시적으로 제시하였고 따라서 논란의 여지도 많았던 의복이기도 하다. 다리를 주로 사용하는 동작에 맞게 *divided skirt* 개념의 의복 채택이 필수였다고 볼 수 있다. 골프는 팔 동작이 중요하므로 소매부분에 활동성

을 부여하도록 특수하게 재단한 골프복을 착용하기도 하였고 테니스복에는 저지 등의 신축성 소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뿐 만 아니라 활동이 진행되는 여타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 대상이었으므로 요트를 즐길 때에는 바다, 강 등 물을 연상시키고 그와 잘 어울리는 세일러복이나 흰색 등을 사용하는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초기 수영복은 실제 용도와는 다르게 실제보다 우아한 디자인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점차 활동에 맞게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의 신체노출도 함으로써 활동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림5> <그림20> <그림45>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는 의상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고 인체에 유해한 디자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근대 여성 sports wear가 발전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세기는 corset 등으로 인체를 지나치게 구속하거나 길고 풍성하게 여러 겹 겹쳐 입는 스커트로 인해 무리하게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일이 흔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는 의복 개혁의 기본 목적과도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을 위한 교육과정 중에 체육과목을 포함시키고 또 그를 위한 의복 개발 시에 가장 고려한 점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여성 건강에 대한 고려였다. 앞서 고찰하였던 바, 여성 sports wear가 실용적이고 편안한 형태로 변화되어가는 추세도 결과적으로는 여성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sports wear가 전반적으로 간편해지고 활동성이 강조됨에 따라 내의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두 가지 종류 및 기능을 하나로 합친 combination과 같은 새로운 종류가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는 스포츠 시 동작을 제한하지 않고 효율적인 신체활동을 도울 뿐 아니라 체온 유지 등의 기능적 역할도 하는 것이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스커트 속에 drawers를 속옷처럼 입는 것이 널리 퍼져 점차 여성의 바지 착용이 보편화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피가 큰 속옷은 점차 그 부피가 감소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기능적이고 남성복 형태의 의복이 채택되는 추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성스러우며 불편하지만 유행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도 공존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가장 기능적 의복인 bloomer 차림의 자전거복에도 gigot 소매 또는 leg-of-mutton 소매가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팔 동작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 유행의 절정인 형태로서 sports wear의 기능성과 더불어 유행과 여성스러움도 함께 나타내고자하는 양면성을 볼 수 있다. 레이스 리본으로 선 장식을 한 수영복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과 더불어 빠른 변화에 대한 수용이 느린 집단이 공존하기도 한다. 따라서 스포츠 웨어 광고 plate와 실생활에서 착용하고 있는 의상에는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소재로는 프란넬, 울, 트위드, 홈스핀, serge 등 남성 sports wear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 이는 투박하고 거칠며 견고한 소재로서 기존 여성복에 사용하던 얇고 부드러우며 미적인 면을 중시하는 소재와는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때로는 jersey와 같은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소재의 사용은 전적으로 sports wear의 실용성 및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측면의 변화보다도 소재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획기적인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색상은 brown, dark blue, gray, black 등 주로 짙은 색이 사용되었고 shirtwaist는 예외적으로 밝은 색을 많이 착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다채롭고 화려한 색상 사용보다는 남성복의 특징이며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된 색상 사용이 주된 경향이었다. 그러나 물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요트타기에는 모자에서 의상 및 신발에 이르기까지 흰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중·후반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극소수 상류층 여성으로 제한되었던 여성 스포츠 인구가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어 대중화되고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19세기 초까지 승마복으로 한정되다시피했던 여성 sports wear가 개발되고 다양화되는 중

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여성 sports wear의 태동기와 다름없는 이 시기의 사회적 특징을 살펴보고 여성 sports wear의 발생과 변천을 관련지어 고찰하고자했던 본 연구는 복식사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19세기 다양한 종류의 여성 sports wear의 등장 이후 20세기 전반부는 casual wear와 바지 착용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더욱 현대적으로 변화되어 안경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므로 20세기 전반의 여성 sports wear에 대한 것은 후속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여성 sports wear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 분야의 심층적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Cosgrave, Bronwyn (2000). *Costume & Fashion*. London: Hamlyn, pp.201-202.
- 2) Cunnington, Willett (1990). *English Women's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p.169.
- 3) Cosgrave, Bronwyn (2000). *전계서*. p.201.
- 4) Cunnington, Willett (1990). *전계서*. p.1.
- 5) Ewing, Elizabeth (2001). *His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London: B.T.Batsford Ltd., p.18.
- 6) Laver, James (1988). *Costume & Fashion*. New York: Thames and Hudson, pp.180-182.
- 7) Russell, Douglas A. (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p.358.
- 8) Fischer, Gayle V. (2001). *Pantaloons and Power*. Kent: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pp144-145.
- 9) Lencek, Lena & Bosker, Gideon (1989). *Making Waves: Swimsuits and Undressing of America*.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p.27.
- 10) Crane, Diana. 서미석 역 (2000). *패션의 문*
- 11) Boucher, Francois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Inc., pp.382-385.
- 12) Fischer, Gayle V. (2001). *전계서*. pp.149-150.
- 13) Crane, Diana. 서미석 역 (2000). *전계서*. p.191.
- 14) Gernsheim Alison (1981). *Victorian and Edwardian Fash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p.64.
- 15) 인도산의 얇은 무명
- 16) Cunnington, Willett and Phillis (1981). *The History of Underclothes*. London: Faber and Faber, p.108 & p.111.
- 17) Black, Anderson & Garland, Madge. 윤길순 역 (2005). *세계패션사*. 서울: 간디서원, pp.380-381.
- 18) Mulvey, Kate & Richards, Melissa (2000). *Decades of Beauty*. London: hamlyn, p.16.
- 19) Cunnington, Willett (1990). *전계서*. p.314 & 309.
- 20) Cunnington, Willett & Phillis (1960). *A Picture History of English Costume*. London: Longacre Press Limited, p.93.
- 21) Rothstein, Natalie (1984). *Four Hundred Years of Fashion*. London: Victoria & Albert Publications, p.43 & p.139.
- 22) Cunnington, Willett (1990). *전계서*. p.314, p.319 & p.326.
- 23) Wilcox, Turner R. (195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317.
- 24) Cunnington, Willett (1990). *전계서*. p.322.
- 25) Crane, Diana. 서미석 역 (2000). *전계서*. p.192
- 26) Cunnington, Willett & Phillis (1981). *전계서*. p.117 & p.123.
- 27) Crane, Diana. 서미석 역 (2000). *전계서*. p.172 & p.192.
- 28) Crane, Diana. 서미석 역 (2000). *상계서*. pp.196-197.
- 29) Laver, James (1988). *전계서*. pp.208-211.
- 30) Mulvey, Kate & Richards, Melissa (2000). *전계서*. pp.24-25.

- 31) 등글납작한 테 없는 모자
- 32) Cunnington, Willett (1990). *전계서*. p.388.
- 33) Cunnington, Willett (1990). *상계서*. p.392 & 397.
- 34) Black, Anderson & Garland, Madge. 윤길순 역 (2005). *전계서*. pp.385-387.
- 35) Crane, Diana. 서미석 역 (2000). *전계서*. p.198.
- 36) Cunnington, Willett (1990). *전계서*. p.392 & p.397.
- 37) Payne, Blanche (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p.532.
- 38) Ginsburg, Madelein (1988). *Victorian Dress in Photographs*. London: B.T. Batsford, p.114.
- 39) Mulvey, Kate & Richards, Melissa (2000). *전계서*. pp.24-25.
- 40) 능직으로 짠 silk
- 41) Cunnington, Willett & Phillis (1981). *전계서*. p.123.